

# 코로나19 시기 근로·소득 여건 변화와 여가생활 격차: 인천시를 중심으로

민경선<sup>1</sup>

<sup>1</sup>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Changes in the Work·Income Condition and Gap of Leisure Life in the COVID-19 Pandemic Period:

Focusing on Incheon

Min, Kyungsun<sup>1</sup>

<sup>1</sup>The Incheon Institute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work·income condition on the leisure life satisfaction in the COVID-19 pandemic period. For this,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subjects of analysis into the 'group(Group A) with decreased income compared to working hours', 'group(Group B) without changes in income and working hours', and 'group(Group C) with increased income compared to working hours'.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mean leisure hours, Group C showed the most and Group B showed the least. Second, Group A showed the lowest leisure life satisfaction while Group B showed the highest. Third, in the response agreeing to the effects of leisure constraint factors, Group A showed the highest response rate. Fourth, in the results of conducting the regression analysis, the leisure life satisfaction of Group A was statistically-significantly lower than Group B. Such results of this study mean that the researches on leisure life satisfaction in the pandemic period should pay attention to the increase of life-based uncertainty and the decrease of income and labor productivity. Moreover, such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he leisure constraint factors could be more greatly cognized in the condition when the income is decreased compared to working hours.

**Key words :** COVID-19, pandemic, changes in the work·income condition, leisure constraints, leisure life satisfaction

주요어 : 코로나19, 팬데믹, 근로·소득 여건 변화, 여가제약, 여가생활만족도

이 논문은 인천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Min, Kyungsun

E-mail: ksm@ii.re.kr

Received: August, 08, 2021 Revised: September, 02, 2021 Accepted: September, 17, 202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거시 사회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으로까지 침투해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의 전방위적 확산은 문명, 정치, 사회, 경제, 인구 부문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거나 혹은 천천히 누적되어 온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의 백신 접종률이 우상향하고는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은 현 인류가 맞이한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촉발한 혹은 촉진된 변화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여가 분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박광호·이승연·김진원, 2020; 사혜지·한지훈, 2021; 이유진·김태환·황선환, 2021; Leeuwen, Klerks, Bargeman, Heslinga & Bastiaansen, 2020; Sivan, 2020)는 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가활동 유형 및 내용, 여가동기, 여가소비, 여가계약, 여가의 의미 등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온라인에 기반한 여가 참여가 증가했다는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제시된다(Sivan, 2020).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대학생들의 스포츠 참여활동, 문화 예술 관람활동은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게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은 증가했음을 분석하였다(박광호 외, 2020).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에 대한 위험 지각,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지침 준수는 밖에서의 활동보다는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을 일컫는 '홈 루덴스(Home Ludens)' 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다(이유진 외, 2021; 최인수·윤덕환·최선애·송으뜸, 2020). 원격

교육, 재택근무, 사적모임 제한 등은 집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일, 공부, 여가에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생활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김난도 외, 2020; Sivan, 2020).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타인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집 안에 머물 것이 권고되면서 미디어 관련 여가, 게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와 동시에 정원 가꾸기나 독서와 같은 전통적 형태의 여가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Leeuwen et al., 2020). 즉, 안전과 감염 예방에 대한 욕구를 우선순위에 두게 한 코로나19는 현 사회의 새로운 여가계약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언택트(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신조어: un+contact=untact) 여가 서비스와 여가참여를 증가시키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 배영임·신혜리, 2020; 사혜지·한지훈, 2021).

선행연구의 분석처럼 팬데믹이 여가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가 감염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여가는 의무적 성격이 강한 경제활동이나 노동과 비교해 자율적 의지와 선택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영역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변화 속에서 사회구성원이 어떻게 자신의 일상을 재구조화해 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역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많은 선행연구(곽한병, 2002; 권상화·홍종배, 2009; 민경선, 2018; 유홍준·신인철·정태인, 2018)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 적절한 방식의 여가참여는 삶의 만족도와 웰빙, 행복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과 사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여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근로·소득 여건 변화 경험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고, 여가실태에서 나타나는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근로·소득 여건 변화에 초점을 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코로나

19 확산 시기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본인 혹은 가족의 바이러스 감염 피해 우려와 함께 소득 감소 및 실직, 감축 근로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Leeuwen et al., 2020). 둘째, 개인의 여가참여를 위한 주요 여가자원에는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있는데, 두 자원의 규모는 경제활동시간과 소득 변화에 상응해 함께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가비용에 투입할 수 있는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도 향상하는 경향이 있으며(남은영·최유정, 2008),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은 여가활동을 위한 주요 자원인 동시에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 된다(이정연·심미영·김영숙, 1997; 이현아·이기영·김외숙, 1999). 그러므로 경제적 상태 변화와의 관계 속에서 여가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 19 시대의 여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에 직접·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및 소득의 변화와 여가생활 실태에서 나타나는 격차에 주목하였으며, 이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데믹 시기 근로·소득 여건의 변화 경험에 따라 여가실태에 격차가 존재하는가? 둘째, 팬데믹 시기 근로·소득 여건에서의 변화 경험이 여가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 아래 시행된 본 연구는 어떠한 사람들이, 또 어떠한 방식으로 팬데믹 시기에 근로·소득 여건의 변화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적 근간이 되는 경제활동 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가생활 실태의 격차를 분석함으로써,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위기가 어떻게 개인 삶의 패턴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개인이 생활시간 사용 및 소득에서 경험하는 변화와 여가생활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실제로 여가참여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 - 예컨대, 시간과 경제적 자원 -을

얼마나 풍부하게 갖고 있는가의 문제에서 나아가 생활시간 및 지출 배분과 관련한 여건의 변화가 여가를 보내는 방식과 여가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와 분석대상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2021년 인천연구원에서 시행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시민생활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시민들의 생활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응답자는 무작위 확률 표집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응답자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모바일웹·앱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조사는 2021년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시행되어, 일반 시민의 여가생활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상당히 최근의 자료이다.

본 연구가 활용하는 이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시대의 생활실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3월과 2021년 3월의 경제활동 상태를 각각 물어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근로여건 변화의 경험과 여가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두 시점 모두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208명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후, 792명에서 분석대상을 추출하였다.

표 1. 제1차 분석대상 추출

	구분	빈도	비율
분석대상	모두 경제활동 함	700	70.0
	한 시점에서만 경제활동 함	92	9.2
	모두 경제활동하지 않음	208	20.8
	계	1,000	100.0

두 시점 중 한 시점이라도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경제활동 시간)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근로시간 감소’가 40.4%, ‘변화 없음’이 51.6%, ‘증가’가 8.0%로 나타났다.

표 2. 코로나19 기간 근로시간 변화

구분	빈도	비율
감소	320	40.4
변화없음	409	51.6
증가	63	8.0
계	792	100.0

이어서 코로나19 기간 가구소득 변화를 분석했고, ‘감소’가 46.2%, ‘변화 없음’이 50.8%, ‘증가’가 3.0%로 나타나서 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코로나19 기간 가구소득 변화

구분	빈도	비율
감소	366	46.2
변화없음	402	50.8
증가	24	3.0
계	792	100.0

코로나19 기간 근로시간 및 가구소득의 변화와 여가실태의 관계에 주목하는 본 연구는 ‘가구소득’과 ‘근로시간’의 ‘감소’ 및 ‘증가’를 경험한 집단과 ‘변화가 없었던’ 집단을 구분하여 <표 4>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4. 코로나19 기간 근로·소득여건 변화 경험 집단

구분	가구소득 변화		
	감소	변화없음	증가
근로시간 변화	감소	①	②
	변화없음	④	⑤
	증가	⑦	⑧

여기에서 ①번은 근로시간과 가구소득이 모두 감소한 집단이고, ②번은 가구소득엔 변화가 없으나 근로시간이 감소한 집단이다. ③번은 근로시간은 감소했으나 오히려 가구소득은 증가한 응답자에 해당하며, ④번은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은 감소한 집단이다. 또, ⑤번은 근로시간과 가구소득 모두에 변화가 없었던 집단이며, ⑥번은 근로시간에는 변화가 없으나 오히려 가구소득은 증가한 대상이다. ⑦번은 근로시간은 증가했는데 오히려 가구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⑧번은 근로시간은 증가했지만 가구소득에는 변화가 없었던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⑨번은 근로시간과 가구소득이 모두 증가한 집단을 의미한다.

표 5. 집단에 대한 설명 및 빈도

구분	내용	빈도	비율
①	근로시간과 가구소득 모두 감소	251	31.7
②	가구소득엔 변화가 없으나 근로시간 감소	63	8.0
③	근로시간은 감소했으나 가구소득은 증가	6	0.8
④	근로시간에는 변화가 없으나 가구소득은 감소	97	12.3
⑤	근로시간과 가구소득 모두 변화 없음	299	37.8
⑥	근로시간에는 변화 없으나 가구소득 증가	13	1.6
⑦	근로시간은 증가했으나 가구소득은 감소	18	2.3
⑧	근로시간은 증가했으나 가구소득엔 변화 없음	40	5.1
⑨	근로시간과 가구소득 모두 증가	5	0.6
계		792	100.0

이렇게 9개로 집단을 세분한 다음, 실제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다시 세 개로 집단을 재분류하였다. 재분류 기준은 ‘근로시간 대비 소득 감소’, ‘소득과 근로시간에 변화 없음’, ‘근로시간 대비 소득 증가’이고, 근로시간과 가구소득이 모두 감소한 ①번 집단(251명)과 근로시간과 가구소득이 모두 증가한 ⑨번 집단(5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분석대상은 536명이 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대비 소득 감소를 경험한 그룹A에는 ④, ⑦, ⑧번 집단이 해당하며, 최종 분석대상 중 28.9%를 차지한다. 근로시간과 가구소득에 변화가 없는 그룹B는 ⑤번 집단으로 분석대상 중 55.8%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증가한 그룹C에는 ②, ③, ⑥번 집단이 속하고 15.3%를 차지하여, 재분류한 분석집단 중 가장 적은 비중을 나타냈다.

표 6. 최종 분석대상

구분	집단	내용	빈도	비율
그룹A	④	근로시간 대비 소득 감소	155	28.9
	⑦⑧			
그룹B	⑤	변화 없음	299	55.8
그룹C	②③	근로시간 대비 소득 증가	82	15.3
	⑥			
계			536	100.0

각 분석집단의 특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3개 분석집단의 성별, 연령, 조사시점의 고용형태 및 가구소득을 살펴보았다. 3개 집단 중 그룹C의 남성 비율이 67.1%로 가장 높고, 여성 비율이 높은 곳은 그룹A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그룹C의 30대 이하 비율이 높다. 40대 연령대는 그룹A가 37.4%, 그룹B가 37.8%로 유사하며, 그룹C에서도 31.7%로 나타나 각 집단의 40대 연령 비율은 모두 낮지 않다. 다만, 50대 비율은 A그룹이 24.5%로 17.1%인 그룹C보다 높으며, 60대 이상 비율은 그룹B가 6.4%로 가장 높다.

조사시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성 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우선, 코로나19 시기에 가구소득과 근로시간 모두에 변화가 없었던 그룹B의 정규직 비율이 8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그룹A가 81.9%, 그룹C가 76.8% 순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의 비율은 그룹C가 1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다. 그리고 고용주·자영업자의 비율은 그룹A가 4.5%로 상대적으로 높고, 미취업자의 비율은 그룹C가 4.9%로 비교적 높다.

표 7. 분석집단의 특성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계	
성별	남성	빈도	72	188	55	315
		비율	46.5	62.9	67.1	58.8
	여성	빈도	83	111	27	221
		비율	53.6	37.1	32.9	41.2
연령	20대 이하	빈도	21	37	12	70
		비율	13.6	12.4	14.6	13.1
	30대	빈도	36	71	27	134
		비율	23.2	23.8	32.9	25.0
	40대	빈도	58	113	26	197
		비율	37.4	37.8	31.7	36.8
	50대	빈도	38	59	14	111
		비율	24.5	19.7	17.1	20.7
	60대 이상	빈도	2	19	3	24
		비율	1.3	6.4	3.7	4.5
고용 형태	정규직	빈도	127	261	63	451
		비율	81.9	87.3	76.8	84.1
	기간제 노동자	빈도	9	18	9	36
		비율	5.8	6.0	11.0	6.7
	임시단기 노동자	빈도	4	3	3	10
		비율	2.6	1.0	3.7	1.9
	고용주/ 자영업자	빈도	7	7	3	17
		비율	4.5	2.3	3.7	3.2
	의존도급, 프리랜서	빈도	3	3	0	6
		비율	1.9	1.0	0.0	1.1
	무급가족 종사자	빈도	0	1	0	1
		비율	0.0	0.3	0.0	0.2
	미취업자	빈도	5	6	4	15
		비율	3.2	2.0	4.9	2.8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빈도	6	13	3	22
		비율	3.9	4.4	3.7	4.1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빈도	42	66	32	140
		비율	27.1	22.1	39.0	26.1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빈도	65	113	19	197
		비율	41.9	37.8	23.2	36.8
	600만 원 이상	빈도	42	107	28	177
		비율	27.1	35.8	34.2	33.0
	계	빈도	155	299	82	536
		비율	100.0	100.0	100.0	100.0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는 4.4%를 나타낸 그룹B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구간은 그룹C가 3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구간은 그룹A가 41.9%, 그룹B가 37.8%로 나타났고, 600만 원 이상의 비율은 그룹B가 35.8%, 그룹C가 34.2%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집단별로 종합해 보면, 우선 그룹A는 여성과 40~50대 비율이 높고 고용주·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이다.

그룹B는 남성과 40대 비율이 높은 편이며, 정규직 비중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하였다. 가구소득도 4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은 집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룹C도 남성 비율이 높으며, 타 집단에 비해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이 낮지 않으나, 기간제 노동자 역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가구소득은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 구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다.

## 2. 분석 도구

분석에서 활용한 생활시간의 양(연속형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면, 식사, 기타 개인 유지시간에 해당하는 필수생활시간의 평일 평균은 9.1시간, 경제활동, 학습, 가사노동, 이동(통근 등) 시간에 해당하는 의무생활시간의 평일 평균은 9.7시간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석대상의 평일 평균 여가시간은 5.2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8. 생활시간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명	변수설명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필수 생활 시간	수면, 식사, 기타 개인 유지시간(의료 서비스, 외모 관리 등)	536	9.1	2.5	0.5	22.0
의무 생활 시간	일(구직활동 포함), 학습, 가사노동, 이동	536	9.7	2.6	0.0	18.5
여가 생활 시간	대면/화상/음성 교제, 공동체 참여, 종교활동, 문화 및 관광, 미디어 이용, 스포츠, 개인 취미 활동 등	536	5.2	2.9	0.0	20.0

다음으로, 집단 간 차이분석에서 활용한 여가제약요인은 ‘시간부족’, ‘경제적 지출 부담’, ‘코로나 19 확산’이다. 여가제약요인은 개인의 여가활동을 제한하는 방해요인을 일컬으며, 여가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나 만족감 등을 제한하는 요인을 의미한다(이영숙·박경란, 2009). 한국인이 자신의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주요 요인은 시간과 비용으로(김유선, 2011; 이현아 외, 1999), 여가시간의 부족과 여가참여를 위한 경제적 지출 부담은 대표적 여가제약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는 감염병에 대한 우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준수가 다양한 방식의 여가참여를 제한했다는 관점에서 시간, 비용의 문제와 함께 코로나 19 확산을 여가제약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각 여가제약요인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요인들이 귀하의 여가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까?’의 단일문항을 활용해 수집되었다.

우선, ‘시간부족’에서는 ‘보통이다’ 42.7%, ‘약간 영향을 끼친다’ 28.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경제적 지출 부담’의 경우는 ‘약간 영향을 끼친다’ 40.3%, ‘보통이다’ 3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은 ‘매우 영향을 끼친다’ 48.7%, ‘약간 영향을 끼친다’ 30.0% 순으로 조사되어,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확산, 경제

적 지출 부담, 시간부족 순으로 인천시민의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 여가 제약요인 및 회귀분석의 범주형 설명변수 기술통계

변수	범주	빈도	비율
시간 부족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17	3.2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108	20.2
	보통이다	229	42.7
	약간 영향을 끼친다	152	28.4
	매우 영향을 끼친다	30	5.6
여가 경제적 제약 지출 요인 부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8	1.5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66	12.3
	보통이다	168	31.3
	약간 영향을 끼친다	216	40.3
	매우 영향을 끼친다	78	14.6
코로나 19 확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5	0.9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0	3.7
	보통이다	89	16.6
	약간 영향을 끼친다	161	30.0
	매우 영향을 끼친다	261	48.7
사회적 고립감	전혀 느끼지 않았다	22	4.1
	별로 느끼지 않았다	175	32.7
	다소 느꼈다	290	54.1
	매우 심하게 느꼈다	49	9.1
성별	여성	221	41.2
	남성	315	58.8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2	4.1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40	26.1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197	36.8
	600만 원 이상	177	33.0
혼인상태	기혼	371	69.2
	미혼	153	28.5
	사별/이혼	12	2.2
연령	20대 이하	70	13.1
	30대	134	25.0
	40대	197	36.8
	50대	111	20.7
	60대 이상	24	4.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9	20.3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369	68.8
	대학원 졸업 이상	58	10.8
	계	536	100.0

그리고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응답은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통해 수집하였고, 응답 결과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 1점에서 ‘매우 심하게 느꼈다’ 4점으로 코딩하여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팬데믹이라는 전지구적인 위기가 초연결 사회에 내재된 위험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인지하는 여가생활만족도를 분석함에 있어 사회적 고립감 변수를 통제변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통제변수로 활용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을 살펴보면, 전체 분석대상 중 여성이 41.2%, 남성은 58.8%로 남성 응답자가 더 많고, 가구소득의 경우 ‘200만 원 미만’ 1점에서 ‘600만 원 이상’ 4점 범주로 리코딩한 후 연속형 변수로 회귀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기혼이 69.2%로 가장 많고, 이어서 미혼 28.5%, 사별·이혼이 2.2%로 나타났다. 연령대 중에서는 40대가 3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30대 25.0%, 50대 20.7% 등의 순으로 많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점에서 ‘대학원 졸업 이상’ 3점 범주로 코딩한 후 회귀분석에서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여가생활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의 범주를 활용한 단일문항(‘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으로 수집되었고,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여가생활만족도의 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났다.

표 10. 종속변수로 활용한 여가생활만족도 기술통계

변수명	변수설명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댓값
여가 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1점)~ 매우 만족(5):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36	2.7	1.0	1	5

###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팬데믹 시기 근로·소득여건 변화와 여가생활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기술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해 집단별 평일 여가시간을 포함한 생활시간 양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각 집단이 주로 참여한 여가활동을 비교하였다.

둘째, 근로시간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구분한 집단 간 여가생활만족도에서 격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여가생활만족도에 대해 분산 분석(ANOVA)을 시행하였다.

셋째, 여가제약요인인 시간부족, 경제적 지출 부담, 코로나19확산이 여가참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집단 간 응답범주의 비율을 활용해 카이스퀘어 분석(Chi-Square Test)을 진행하였다.

넷째, 근로·소득여건의 변화가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코로나19 시기 근로시간과 가구소득에 변화가 없었던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여가시간뿐만 아니라 근로시간과 관련있는 의무시간의 양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는데, 24시간이라는 하루 총 시간양에서 여가·의무생활시간이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우려되어 각 변인을 통제변수로 하는 모델을 각각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외에도 코로나19시기에 경험한 사회적 고립감 인지 정도, 성별, 가구소득, 혼인상태, 연령, 교육 수준, 조사 시점의 경제활동 여부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 Ⅲ. 분석 결과

### 1. 집단별 여가실태 차이 비교

집단별 평일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결과, 여가 생활시간은 그룹C가 5.67시간으로 가장 많고, 그룹B가 5.06시간으로 가장 적다. 반면, 필수생활시간은 그룹B가 9.25시간으로 가장 많고, 그룹C가 각각 8.89시간으로 가장 적다. 의무생활시간은 그룹A가 9.91시간으로 가장 많고, 그룹C가 9.44시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룹C가 자신의 여가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집단 간 생활시간 양에 대한 차이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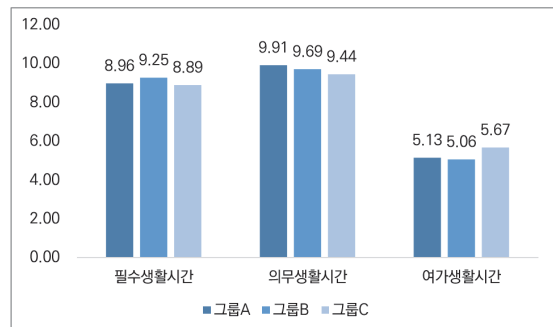


그림 1. 집단별 생활시간

다음으로, 인천 시민이 주로 참여한 여가활동의 1, 2순위를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TV 시청’, ‘온라인 동영상 시청’, ‘휴식’을 응답한 비율이 높고, 그 외에 ‘취미·자기계발 활동’, ‘실외 운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결과를 집단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TV 시청’을 응답한 비율은 그룹A가 27.7%, 그룹B가 26.1%, 그룹C가 22.0%로, 여가시간에 ‘TV 시청’을 했다고 응답한 그룹C의 비율은 비

교적 낮았다. 반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응답한 비율은 그룹C가 20.1%로, 그룹A의 13.9%, 그룹B의 16.9%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상 매체를 접하는 방식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휴식’을 응답한 비율은 그룹A가 21.3%, 그룹C가 20.7%로 유사하였으나, 코로나19 시기에 근로시간 및 소득에 변화가 없는 그룹B가 여가시간을 휴식하는 데 보내는 비율은 17.9%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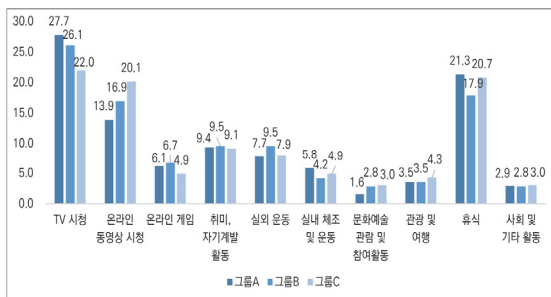


그림 2. 집단별 주요 참여한 여가활동: 1·2순위 합산(단위: %)

이어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의 집단별 여가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시행한 결과, 집단 간 여가생활 만족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가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그룹B가 2.84로 가장 높고, 뒤이어 그룹C가 2.72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그룹A의 여가생활만족도가 2.56으로 가장 낮았다.

표 11. 집단별 여가생활만족도와 차이분석

구분	여가만족도	F	사후검증 (scheffe)
그룹A	2.56	4.07*	그룹A(그룹B
그룹B	2.84		
그룹C	2.72		

\*\* $p < .05$

그리고 여가생활만족도에서 나타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가참여 제약요인에 관한 인식을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간 부족’, ‘경제적 지출 부담’, ‘코로나19 확산’이 여가참여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3개 항목 모두에서 그룹A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응답비율을 보면, ‘시간 부족’이 여가참여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룹A가 44.5%, 그룹B가 30.1%, 그룹C가 28.1%였으며, ‘경제적 지출 부담’에서는 그룹A가 65.2%, 그룹B가 52.2%, 그룹C가 45.1%로 나타났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이 여가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든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룹A가 82.6%로 가장 높고, 뒤이어 그룹C가 78.1%, 그룹B가 76.9%였다. 이처럼 그룹A에서 세 가지 여가참여 제약요인이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른 그룹보다 상당히 높아서, 상대적으로 그룹A가 인지하는 각 항목의 여가참여 제약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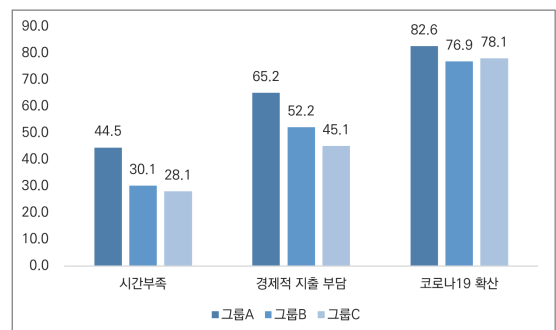


그림 3. 여가참여 제약요인: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비율(단위: %)

그리고 이러한 여가참여 제약요인에 대한 경험 비율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간부족’, ‘경제적 지출 부담’ 항목에서 그룹 A, B, C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보통이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응답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집단별 응답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다.

표 12. 여가참여 제약요인에 대한 집단간 차이분석(단위: %)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chi^2$
시간 부족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1.94	21.07	34.15
	보통이다	33.55	48.83	37.8
	영향을 끼친다	44.52	30.1	28.05
경제적 지출 부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10.32	15.38	14.63
	보통이다	24.52	32.44	40.24
	영향을 끼친다	65.16	52.17	45.12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3.23	5.69	3.66
	보통이다	14.19	17.39	18.29
	영향을 끼친다	82.58	76.92	78.05

\*\* $p < .01$ ; \* $p < .05$

## 2. 근로·소득여건 변화가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근로·소득여건 변화가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근로·소득여건에서 변화가 없었던 그룹B를 준거집단으로 두고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모델1에서는 여가시간을, 모델2에서는 의무시간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두 모델 모두에서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그룹A의 여가생활만족도가 그룹B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1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한 여가시간의 증가는 여가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반면, 분석 모델2에서 의무시간의 증가는 여가생활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감의 경험은 두 모델 모두에서 여가생활만족도를 감소시켰고, 기혼인 사람과 비교해 미혼인 사람의 여가생활만족도가 더 높다. 이 외에 통제변수로 사용한 성별, 가구소득,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는 여가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표 13. 근로·소득여건 변화가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1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델2 회귀계수 (표준오차)
근로·소득여건 변화 경험(준거: 변화 없음/그룹B)		
근로시간 대비 소득 감소(그룹A)	-0.234* (0.096)	-0.214* (0.096)
근로시간 대비 소득 증가(그룹C)	-0.118 (0.121)	-0.105 (0.120)
여가시간	0.046** (0.015)	
의무시간		-0.059*** (0.016)
사회적 고립감	-0.219*** (0.060)	-0.226*** (0.060)
남성(준거: 여성)	0.034 (0.091)	0.044 (0.090)
가구소득	-0.053 (0.052)	-0.058 (0.052)
혼인상태(준거: 기혼)		
미혼	0.269* (0.118)	0.286* (0.117)
사별/이혼	0.051 (0.284)	0.016 (0.283)
연령	0.086 (0.049)	0.079 (0.049)
교육수준	0.041 (0.078)	0.052 (0.078)
현재 경제활동 여부 (준거: 경제활동 하고 있음)	-0.110 (0.219)	-0.179 (0.220)
상수항	2.920*** (0.325)	3.746*** (0.349)
N	536	536
R <sup>2</sup>	0.074	0.080

\*\*\* $p < .001$ ; \*\* $p < .01$ ; \* $p < .05$

#### IV.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발발해 확산한 시기인 2020년 3월과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두 시점 중 한 시점에라도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대상만을 추출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대상을 두 시점 사이에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그룹 A, 소득과 근로시간에 변동이 없었던 그룹 B,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증가한 그룹 C로 구분한 뒤, 집단 간 여가생활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살펴보는 데 주목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는 ‘팬데믹 시기 근로·소득 여건의 변화 경험에 따라 여가실태에 격차가 존재하는가?’와 ‘팬데믹 시기 근로·소득 여건에서의 변화 경험이 여가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두 가지 연구문제에서 시작되었다. 두 가지 연구문제에 따라 시행된 분석으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1. 근로·소득 여건 변화와 여가실태 격차’ 및 ‘2. 코로나19 시기의 여가생활만족도’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근로·소득여건 변화와 여가실태 격차

본 연구는 집단별로 평일 생활시간의 분배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가생활시간은 그룹 C > 그룹 A > 그룹 B 순으로 많고,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 등을 포함하는 의무생활시간은 그룹 A > 그룹 B > 그룹 C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즉, 코로나 19 시기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증가한 그룹 C는 여가시간은 가장 많지만, 의무생활시간은 소득 감소를 경험한 그룹 A보다도 적다. 그룹 A와 비교해 그룹 C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남성 20~30대 직장인(정규직·기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젊은 직장인 남성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가시간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코로나19 시기에 근로시간과 소득에

변화가 없었던 그룹 B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그룹 B가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폭하는 상황 속에서도 경제·근로여건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으나, 한편으로는 타 집단과 비교해 여가생활시간은 가장 적고 의무생활시간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가생활시간이 가장 많은 그룹 C와의 비교 속에서 그룹 B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룹 B도 남성의 비율이 높으나, 연령대는 그룹 C와 비교해 40대 이상의 분포가 많다. 또한, 정규직의 비율이 87.3%로 가장 높으며, 가구소득도 그룹 C와 비교해 많은 편에 속한다.

즉, 그룹 C는 경력초기단계의 남성 비율이 높은 반면, 그룹 B는 중간관리자 이상의 남성 정규직 비율이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중간관리자 이상의 근로자는 필수인력이라는 이유로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이들의 의무생활시간은 출퇴근을 위한 이동시간 등이 더해져 비교적 많고, 여가생활시간은 적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연계해 살펴본 통계청의 <2019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평일 출퇴근 시간의 전국 평균은 1시간 16분이고 서울, 경기,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각각 15분, 12분, 9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하정연, 2020).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주로 참여한 여가활동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그룹 A와 그룹 B는 ‘TV 시청’ 비율이 높고, 20~30대 비율이 높은 그룹 C는 ‘온라인 동영상 시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1년 동안 근로시간 대비 소득 감소를 경험한 그룹 A는 ‘TV 시청’과 ‘휴식’에 여가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 여건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그룹 B는 의무생활시간이 많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휴식’ 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았으며, ‘온라인 게임’이나 ‘취미·자기계발’, ‘실외 운동’에 참여한 비율은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시간 대비 자신의 노동생산성이 감소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그룹A는 그룹B와 비교해 실제 여가시간은 더 많지만, 상당히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그룹B는 여가생활시간은 가장 적은 집단이지만, 경제 및 근로 여건 등에서 경험하는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대역폭을 가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집단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가생활만족도는 그룹B > 그룹C > 그룹A 순으로 도출되었다. 즉, 여가시간은 가장 적으나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양상을 나타낸 그룹B의 여가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소극적 여가활동에 집중된 여가패턴을 갖는 그룹A의 여가생활만족도가 가장 낮다. 즉,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이 지속되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우려를 넘어 현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분석은 누가 불확실성이 큰 사회에서 더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여가생활실태에서의 격차 심화 및 여가생활에서 경험하는 만족감의 양극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인의 가장 큰 여가계약요인으로 알려진 ‘시간부족’과 ‘경제적 지출 부담’에 더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새로운 여가 계약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각 여가계약요인 인식에 대한 카이스케어 분석을 시행한 결과, ‘시간부족’과 ‘경제적 지출 부담’ 항목에서만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여가참여에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룹A > 그룹C > 그룹B 순서로 나타났고, 이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현 사회가 맞이한 코로나19는 집단에 상관없이 큰 인류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세 개 항목 모두에서 그룹A가 ‘영향을 끼친다’를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이며, 이러한 현상은 그룹A가 인지하는 동일시간 대비 노동생산성 저하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실제 그룹A의 평균 여가생활시간은 그룹B보다 많지만 ‘시간부족’이 여가참여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룹A가 44.5%, 그룹B가 30.1%였다. 이에 대해서는 그룹A가 근로시간 대비 소득의 감소를 경험한 집단이므로, 이전과 같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여가시간 양이 타 집단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여가시간의 충분도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시간당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 근로하게 될 확률이 높음을 설명한다(김유선, 2011). 그러므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그룹A는 시간당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소득수준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 참여의지가 여가참여 의지보다 우위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득수준은 여가비용에 대한 주요 설명요인 중 하나인데(김유선, 2011; 이정연 외, 1997), 그룹A는 이전과 비교해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감소했으므로 현재 나의 실제 소득수준 보다는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인식이 여가 참여에 대한 지출 부담을 더 강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가참여에 코로나19 확산이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그룹A가 82.6%로 가장 높다. 이는 사회적 차원과 개인 삶 차원의 불확실성이 결합할 때 이러한 변동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코로나19의 잠재적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시기에 근로시간 및 소득에서 변동이 없거나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증가한 집단과 비교해 그룹A는 여가계약요인에 대한 협상전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집단임을 예상할 수 있다.

## 2. 코로나19 시기의 여가생활만족도

코로나19 시기 근로시간과 소득에 변화가 없었던 그룹B와 비교해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그룹A의 여가생활만족도는 여가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사회적 고립감,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낮다. 즉, 팬데믹이라는 보건환경의 위협과 개인의 경제적 여건의 악화는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의 영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아닌 일부에서만 경제적 여건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은 국내의 고용 지표를 악화시킴과 동시에 비정규직에서 저임금노동자를 증가시켰으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심화하고 있다(황선자, 2021). 즉, 감염병은 안정적인 노동과 불안정한 노동이 갖는 위험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며, 팬데믹 상황에서 불안정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안효상·서정희, 2020). 이 때문에 전염병은 현 사회가 맞이한 사회적 재난이지만, 사회구성원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 않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 연구의 분석에서도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감소한 집단은 자신의 경제적 여건의 악화와 함께 낮은 수준의 여가생활만족도를 보여준 반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과 근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다양한 여가생활에 참여하며, 자신의 여가를 통해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시기 경제적 여건의 변동 여부 및 방향은 여가생활에 차별적 영향을 미침을 나타냈다. 이와 유사하게, 과거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여가생활의 격차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한 연구(남은영·최유정, 2008)는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것이 아니라 계층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선택되고 경험되는 차별적 특성

을 가짐을 설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그룹A는 코로나19 시기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감소한 집단으로 40대 이상 여성, 임시단기 노동자, 자영업자, 의존도급·프리랜서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인다.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코로나19에 비교적 취약하다는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취약성은 여가제약요인에 대한 인식 및 여가생활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실제 소득의 감소나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감소한 집단이 인지하는 여가제약 요인은 다른 집단보다 훨씬 크고, 평균적인 여가시간이나 의무시간의 양에서 타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역시 높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거시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여러 영역들은 상호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영역에 끼친 전염병의 부정적 영향은 여가영역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V. 결론

현 인류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시기의 근로·소득여건 변화와 여가생활 격차를 분석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시기의 평일 평균 여가시간은 그룹C(근로시간 대비 소득 증가 집단)가 가장 많고 그룹B(근로시간·소득에 변화 없음)가 가장 적으나, 집단 간 여가시간 양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그룹A(근로시간 대비 소득 감소 집단)의 여가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고 그룹B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가장 높으며 집단 간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여가제약요인으로 제시한 ‘시간 부족’, ‘경제적 지출 부담’, ‘코로나19의 확산’이 여가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룹A에서 가장 높았고, 이 중 ‘시간부족’, ‘경제적 지출 부담’ 항목의 응답 비율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넷째, 근로·소득 여건 변화가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여가시간 및 의무시간의 양을 통제한 상황에서 그룹B와 비교해 그룹A의 여가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팬데믹 시기의 여가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충분한 여가시간을 확보하였는가의 문제에서 나아가 생활기반의 불확실성 증가와 소득 및 노동생산성의 감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이는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여가생활 참여와 관련한 제약요인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을 시행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전국 단위로 수집된 자료가 아닌 인천 시민만을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로부터 추출한 것이다. 무작위 확률표집이 시행되긴 하였으나, 응답자가 1,000명으로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시행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기적으로 시행된 조사자료를 활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방역지침 변화에 따른 여가생활실태를 분석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사회적 고립감, 여가 제약요인, 여가생활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코로나19가 사회계층의 여가생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최종 분석집단을 2020년 3월과 2021년 3월 시점에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감소한 집단’, ‘근로시간·소득에 변화가 없는 집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증가한 집단’으로 구분하면서 ‘근로시간과 소득이 모두 감소한 집단’(표 5의 ①번 집단)과 ‘근로시간과 소득이 모두 증가한 집단’(표 5의 ⑨번 집단)을 최종 분석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시기 분석집단의 근로시간과 소득 변화의 변동성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①번 집단은 근로시간과 소득이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들을 노동생산성의 감소를 경험한 집단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특징은 지니나, 코로나19 시기에 더 근로하고 싶어도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을 가능성을 가진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①번 집단은 그룹A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기에 경제적 여건의 악화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를 반영하듯, ①번 집단의 여가생활만족도는 2.46점으로 그룹A·B·C보다 낮고, 여가 참여에 ‘경제적 지출 부담’과 ‘코로나19 확산’이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4.1%, 87.7%로 세 개 집단과 비교해 두드러지게 높다. 따라서 팬데믹 시대에 경제여건의 악화와 여가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활용한 분석자료보다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제적 여건변화를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가 활용한 자료의 한계로 코로나19 시기에 개인소득의 변화는 관찰하지 못하였다. 가구소득은 가구 구성원 소득의 합계이기 때문에 개인 소득의 변화가 가구소득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는 하나, 엄밀히 개인의 노동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의 변화를 관찰해 분석도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수행을 통해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에 대한 분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나, 코로나19 시기에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휴식형 여가와 비교해 관계형 여가가 여가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왔으나(남은영·최유정, 2008), 코로나19의 확산은 집에 머물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권고되었기 때문에 관계형 여가활동에의 참여 역시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방역지침의 적용과 여가참여 방식의 변화는 1인 가구 및 독거 노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노년기에는 여가생활이 생활시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어떻게 여가시간을 보냈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이영숙·박경란, 2009). 따라서 팬데믹 시대에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변화하는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시기 여가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 안전한 여가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에도 연구 관심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사회와 개인 삶의 회복력 향상에 여가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발전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회복력(resilience)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기존의 상태로 돌아오는 개체 혹은 개체군의 능력”(이수빈, 2017)으로 정의한다.

물론, 경제 여건의 악화는 여가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인식과 감정 경험은 경제적 요인과 같은 변인에 종속적인 성격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의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적

절한 방식의 여가 참여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석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정연 외, 1997; 이현아 외, 1999; Sirgy, Uysal & Kruger, 2017).

특히, 최미리와 이양출(2012)의 연구는 노인이 여가스포츠활동에 참가할 때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은 감소하고 회복탄력성은 향상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여가생활은 스트레스를 저감하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삶의 균형을 향상하고 신체적·감정적 회복을 촉진하는 효과를 지닌다(Iwasaki, Mactavish & Mackay, 2005). 이러한 선행연구의 축적은 여가의 영역이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사회와 개인의 회복을 주도하는 영역으로서 역할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앞으로 생태환경의 위기는 더욱 빈번하게 새로운 전염병을 확산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이루어지고는 있는 현 상황에서 개인과 사회의 회복이라는 가치를 담은 여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곽한병(2002).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의 관계성 연구: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11(1), 55-63.
- 권상희, 홍종배(2009). 세대별 여가문화소비유형과 삶의 만족도 연구: 여가소비경향, 자기정체성, 대인관계, 여가소비만족도, 삶의 만족도간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6(1), 63-97.
-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이향은, 이준영, 이수진, 서유현, 권정윤, & 한다혜(2020). **트렌드 코리아 2021**. 서울: 미래의 창.
- 김유선(2011).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산업노동연구**, 17(1), 37-70.
- 남은영, 최유정(2008).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 격차- 여가 유형과 여가 및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1(3), 57-84.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2020). '언택트'가 뭐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1581>.
- 민경선(2018). 위라백 세대의 여가와 삶의 만족도. **한국웰니스학회지**, 13(3), 377-388.
- 박광호, 이승연, & 김진원(2020). 대학생들의 COVID-19 전후 여가변화와 여가동기 및 건강신념과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4(3), 69-86.
- 배영임, 신혜리(2020).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이슈 & 진단**, 2020.5, 1-26.
- 사혜지, 한지훈(2021). 코로나19와 여가제약: 위계적 여가제약 모델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60(1), 387-400.
- 안효상, 서정희(2020).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소득보장. **산업노동연구**, 26(3), 63-118.
- 유홍준, 신인철, & 정태인(2018). **일·여가의 변화와 행복 복지**. 집문당.
- 이수빈(2017). 불평등, 회복력, 인간성의 손상: 개인들 간 복구 가능한 임계점 변이와 그 결과의 사회학적 분석. **한국사회학**, 51(4), 127-178.
- 이영숙, 박경란(2009). 노인의 여가제약,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1-12.
- 이유진, 김태환, & 황선환(2021). 빅데이터를 활용한 Covid-19 여가소비 분석: Pre-Corona vs. With-Corona.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5(2), 21-36.
- 이정연, 심미영, & 김영숙(1997).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인과관계분석: 여가생활 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3), 287-305.
- 이현아, 이기영, & 김외숙(1999). 부부의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및 여가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37-155.
- 최미리, 이양출(2012). 노인의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에 따른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완충효과. **한국체육학회지**, 51(1), 75-90.
- 최인수, 윤덕환, 채선애, & 송으뜸(2020). **2021 트렌드 모니터**. 서울: 시크릿하우스.
- 하정연(2020). 이리니 서울 집값 오르나 - 서울 출퇴근 길바닥에 1시간 31분. **서울경제**(2020.7.30.)
- 황선자(2021). 소득불평등과 최저임금정책: 거시경제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노동N이슈**, 2021(4), 1-17.
- Iwasaki, Y., Mactavish, J. & Mackay, K.(2005). Building on Strengths and Resilience: Leisure as a Stress Survival Strateg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3(1), 81-100.
- Leeuwen, M. v., Klerks, Y., Bargeman B., Heslinga, J. & Bastiaansen, M.(2020). Leisure Will Not Be Locked Down - Insights on Leisure and COVID-19 from the Netherlands. *World Leisure Journal*, 62(4), 339-343.
- Sirgy, M. J., Uysal, M., Kruger, S.(2017). Towards a Benefits Theory of Leisure Well-Being.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12, 205-228.
- Sivan, A.(2020). Reflection on Leisure during COVID-19. *World Leisure Journal*, 62(4), 296-299.